

우리금융지주 수뇌부 인선 작업 돌입

송기진 光銀행장 연임 여부 주목

회장에 이팔성·강만수씨 거론...우리·경남 행장도 관심

우리금융지주회사가 차기 회장 및 행장의 선임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송기진 광주은행장의 연임 여부에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우리금융은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와 행장후보추천위원회(행추위) 구성을 마무리하고 회장 및 행장 후보 추천 일정과 공모 방법 등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

우선 회추위는 오는 9일까지 공모를 통해 지원서를 받고 서류심사와 인터뷰 등을 거쳐 이달 말에 차기 회장 후보를 선정할 계획이다.

회장 후보는 다음달 4일 열리는 이사회 승인을 거쳐 같은 달 25일 주주총회에서 최종 선임된다.

우리금융지주회사의 차기 회장으로는 이팔성 현 회장과 강만수 경제특보가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강만수 특보는 신한지주 차기 회장으로 선임될 수도 있어 유동적이다.

이와 함께 행추위로 오는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이종휘 우리은행장과 송기진 광주은행장, 박영빈 경남은행장 직무대행의 후임 인선에 나선다.

본격적인 차기 행장 선임 절차는 우리금융지주회사 회장 선임 작업이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 가는 이달 중순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차기 우리은행장은 이종휘 행장의 연임 여부

가 주목되는 가운데 이순우 수석부행장, 윤상구 전무 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광주은행장은 송기진 행장의 연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송 행장은 우리은행(옛 상업은행) 노조위원장 출신답게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광주은행 조사를 원만하게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송 행장은 '영업의 귀재'라는 명성에 걸맞게 지난 2008년 6월 취임 이후 '소호명가', '하이테크리터론' 등 히트 상품을 적시에 출시하는가 하면 전남 22개 기초자치단체와 '지역개발 금융지원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역발달경영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송 행장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광주은행은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기업들의 연쇄 기업회생 절차 신청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당기순이익을 1050억원이나 올렸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금융권이나 정치권에서도 송 행장의 연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올해 내에 마무리 지어질 광주은행의 민영화 를 위해서라도 지역 출신으로 지역 상황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송 행장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팔성 회장

강만수 특보



이종휘 행장

송기진 행장

금융감독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 우리금융 등 금융권 관계자들도 송 행장의 연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광주은행장 선임은 우리금융지주회사에서 결정할 것이며 극도의 보안이 이뤄질 것"이라며 "하지만 송 행장이 그동안 상당한 성과를 거둔데다 광주은행이 민영화 과정에 있다는 점에서 연임 가능성이 큰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졸업선물로 뭘 고를까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입학·졸업시즌을 맞아 예비초등학생들은 PC제품, 예비 중·고등학생들은 PMP와 전자사전, 예비대학생은 넷북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밝혔다. 7일 고객들이 초등학생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인기를 끌고 있는 디지털카메라를 고르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경제단체 "탄소거래제 2015년 이후로 연기하자"

"기업 경쟁력 약화" ... 정부 2013년 시행안에 재차 반발

녹색성장위원회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정정안'을 이달 국회에 제출하려는 가운데 경제단체와 산업계가 "국제경쟁력을 훼손하는 이중 규제"라며 재차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5단체와 한국철강협회 등 13개 업종별 단체는 7일 정부가 2013년 시행하려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2015년 이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무총리실 등에 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건의문에서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면 국내 제조업의 원

가가 올라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하고 미국, 중국, 인도, 일본 등 주요국이 이를 연기하거나 철회하는 국제적 추세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경제단체와 산업계는 현재 시행 중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효과가 검증되는 2015년 이후에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마디로 배출권거래제는 신뢰성 높은 통계정보를 바탕으로 공정한 할당시스템 구축이 필수이기 때문에 2015년쯤 돼야 배출권할당의 기본적 인프라 요건이 마련된다는 설명이

다. 이들은 "한국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할 수밖에 없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여서 국제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다"며 "배출권의 10%만 유상으로 할당해도 산업계 전체가 연간 5조 6000억~14조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욱기자 jwpark@연합뉴스

▲탄소 배출권 거래제 = 정부가 할당된 양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업은 초과배출량 만큼의 배출권을 현금으로 구입하고, 할당량보다 적게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업은 보상을 받는 제도.

막걸리의 힘

對日 수출 1559만달러, 사케 수입 앞질렀다

작년에 일본에서 한국 전통주인 막걸리 열풍이 불면서 수출이 급성장, 대일(對日) 막걸리 수출액이 처음으로 일본 전통주인 사케의 수입액을 앞지른 것으로 7일 파악됐다.

관세청(청장 윤영선)에 따르면 작년엔 일본에 수출된 막걸리는 총 1만5556t, 1559만달러로 전년에 비해 188.6%(금액기준)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반면에 작년 한국의 일본 사케 수입은 1369만달러(3147t)로 전년에 비해 43.1%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일본에 수출된 막걸리 총금액이 일본에서 수입된 사케의 총금액보다 190만달러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은행 고금리 대출 13조 육박

가계대출 1.9% 차지

저금리 기조에도 불구하고 연 10% 이상 고금리가 적용된 은행 대출 규모가 1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최근 시장 금리 상승으로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서민과 중소기업의 고통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7일 한국은행과 은행권에 따르면 작년 국내 은행이 신규 취급한 가계대출과 중소기업대출 가운데 금리가 10%를 넘는 대출의 비중은 각각 1.9%와 1.1%로 집계됐다.

가계대출과 중소기업대출 중 10%를 넘는 대출 비중은 2007년 이후 4년째 각각 1.9%와 1.1%를 웃돌았다.

/연합뉴스

중소 인력 양성 66곳

중기청, 73억원 지원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에 필요한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는 학교 66곳을 선정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73억원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중기이 밝은 특성화고 53곳과 대학 13곳은 각종 비용을 지원받아 중소기업에 취업할 인력 1700명을 교육한다.

이 중 1530명(취업률 90%)이 해당 학교들과 채용 연계 협약을 맺은 중소기업에 취업할 것이라고 중기청은 전했다.

/연합뉴스

LH, 울 광주·전남 79만2000㎡ 용지 공급

나주 혁신도시 등 14개 사업지구 3550억 규모

LH(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 본부는 7일 올해 광주·전남지역 14개 사업지구에서 894필지, 79만2000㎡ 용지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공급가격은 3550억원 규모다.

공급 토지는 나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를 비롯해 광주 수완·선운·신창·일곡·첨단·첨단2·하남주단2·효천2지구와 나주 대호·목포 용해2·순천 연향2·여수엑스포타운·여천 돌산지구 등 14곳이다.

용지별로는 ▲공동주택용지 3곳 6필지 18만1000㎡ ▲단독주택용지 10곳 723필지 22만2000㎡ ▲상업업무용지 9곳 129필지 9만㎡ ▲산업시설용지 3곳 8필지 25만4000㎡ ▲기타시설용지 2곳 28필지 4만7000㎡ 등이다.

특히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의 경우 503억원 규모의 단독주택 501필지 13만9000㎡, 455억원 규모의 상업용지 67필지 5만3000㎡, 125억원 규모

기타시설용지 22필지 3만2000㎡가 공급된다.

또 부지난에 시달리고 있는 광주첨단산단은 359억원 규모의 첨단1·2단계 산업시설용지 7필지 25만㎡를 공급해 광주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급 공고는 일간지와 LH 토지청약시스템(www.lh.or.kr)에 공고된다. 문의는 LH 광주전남본부 토지공급팀 062-360-3163~4.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코스피지수	▲ 2,081.74 (+9.71)
코스닥지수	▲ 531.09 (+6.59)
금리 (국고채 3년)	▲ 4.10% (+0.12)
원·달러 환율	▼ 1,107.50원 (-9.40)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

지역 백화점 "발렌타인데이 잡아라"

롯데백화점, 다양한 초콜릿 등 판매
광주신세계, 우승 커플 상품권 제공
현대백화점, 산타가 직접 케익 배달

오는 14일 발렌타인데이를 앞두고 지역 백화점이 다양한 행사를 펼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페레로로쉐, 키세스 등 다양한 초콜릿을 준비하고 수제초콜릿으로 봉봉초콜릿 20구를 4만8000원에 판매한다. 식품매장에서는 막대 초콜릿, 초콜릿 꽃다발 등 원하는 형태로 초콜릿을 포장할 수 있고, 초콜릿 외에 내 남자를 위한 발렌타인데이 실속 선물로 비오템 옴프 화이트 필 2중세트(10만4000원), 버커투 가방 (11만9000원), 루이까뜨즈 넥타이(9만5000원)등을 준비했다.

롯데백화점 문화센터는 커플 물방울 진주 열쇠고리, 커플 물방울 진주 핸드폰고리, 발렌타인데이 선물용 꽃바구니, 초콜릿 플라워 박스만들기 강좌를 연다.

광주신세계백화점은 5·6층에서 발렌타인데이 Young Gift 제안 상품기획전을 연다. 13일에는 5층 포토Wall(할프로렌 매장 옆)에서 커플 포토타임과 패셔니스타 사진전을 열어 우승커플에 각각 상품권 10만 원권과 5만 원권을 제공한다.

또한 오는 11일까지 연인과의 러브스토리를 커플사진과 함께 DM으로 응모하면 총 5커플에게 사진이 새



광주신세계 이마트 1층 햇빛광장에 마련된 초콜릿 매장.

겨진 신세계 기프트카드를 선물한다.

광주신세계 이마트 1층 햇빛광장에서는 다양한 초콜릿을 선보이고, 3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과 10% 할인혜택도 주어진다.

현대백화점 광주점은 발렌타인데이 산타클로스 이벤트를 펼친다. 이번 이벤트는 오는 11~13일까지 1층 정문 안내데스크에서 응모권 추첨을 통해 3커플에게 14일 발렌타인데이 당일, 와인과 케익을 원하는 시간과 장소로 산타클로스가 직접 배달해 준다. 또 13일 2만원 이상 구매 고객 100명에게 자신의 이니셜이 새겨진 초콜릿을 선물할 수 있도록 해준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SINCE 1982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 매우 잘 들립니다. * 안보입니다. * 가격이 맘에 듭니다.

국제보청기

www.kjhr.com

전자 습기제거기 (Avantgarde) New Dry box 새로운 전자습기 제거기 출시

- ★ 기존의 습기제거 기능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여 UV 광자외선을 통해 보청기의 박테리아까지 99.9% 제거해주는 신개념 습기 제거기
- ★ 우리 몸은 수분으로 인해 귀 안에 항상 습기가 차게 됩니다. 이런 습기와 귀지로 인해 보청기 기능이 저하되게 됩니다.
- ★ 보청기는 인체에 착용하는 기계입니다. 그러므로 살균처리와 청결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알케모르케 보이는 박테리아로 인해 인체에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세균을 이제는 새로운 전자습기 제거기로 해결하세요.

본점 062-227-9940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81-1

충장점 062-227-9970

순천점 061-752-9940

전라남도 순천시 영동 32-5

목포점 061-262-9200